

## ■ 전신마취 전후 주의사항 ■

### 1. 전신마취의 필요성

전신마취란 의식소실, 감각차단, 운동차단 그리고 반사의 차단 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런 작용을 나타내는 약물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진료에 필요한 최적의 생리 상태를 오지할 수 있도록 처치를 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감시하는 진료행위입니다.

### 2. 전신마취 전 검사

- ① 수술 날짜가 확정되면 수술 전날 마취과 의사는 환자의 의무기록지를 검토하고 환자와 **면담**을 하게 됩니다.
- ② **수술 전날 자정부터 음식물의 섭취를 금해야 합니다.**  
이것은 마취 중에 위 내용물이 구토로 인하여 기도로 들어가 질식을 초래하거나 또는 폐렴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.
- ③ 환자는 전신마취실로 오기 전에 진료실에서 근육주사나 약물을 복용하게 됩니다.  
이것은 환자의 불안을 덜어주고 수술 도중에 나타날 수 있는 불필요한 반사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마취 전 투약(premedication)입니다.
- ④ **감기에 걸린 경우, 전신마취를 연기하는 것이 좋습니다.**  
그 이유는 감기로 인하여 기관지들이 예민한 상태가 되어 마취 도중에 분비물이 많아지고 기관지가 수축하여 호흡장애를 일으키거나 수술 후에 폐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### 3. 전신마취 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 및 주의사항

- ① 환자는 의식을 회복하면서 치료로 인한 통증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.
- ② **구역 및 구토는 마취나 수술 후에 가장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입니다.**  
구토로 인하여 위(胃)로부터 구강내로 역류한 위 내용물이 폐 속으로 들어가면 폐렴을 일으키거나 심한 경우에는 질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.
- ③ 전신마취를 받은 환자들에서는 신경성인 원인과 체온조절 능력의 저하로 인하여 떨림과 경련이 흔히 나타납니다. 떨림이 계속되면 심박동수의 상승과 심장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**실내온도를 조절하고 가온모포를 사용하여 정상 체온을 유지하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.**
- ④ 전신마취 직후에는 가능한 **심호흡과 기침을 자주하여** 기관 분비물을 배출시켜야 합니다.
- ⑤ 귀가는 환아가 완전히 회복되고(스스로 보행 가능한 수준), **담당 의사의 확인 후에** 가능합니다. (전신마취 소요 시간만큼 회복시간 필요)
- ⑥ 환아가 회복하면서 물을 달라고 할 때 소량의 물을 줄 수도 있으나, 구역 및 구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. 저녁식사부터 과일주스, 우유, 유동식 등을 소량씩 섭취하게 합니다.

### 4. 전신마취 시 보호자 준비물

- ① **가저귀**
- ② 체온 유지를 위한 겉옷
- ③ 보호자 외 1인 동행

주/야간 연락처 : 전북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 외래 ☎ (063) 250-2121

전북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

